환경과 反차별

NO. 4

목 차

『불량 국가(Rogue States)[1]』, 미국의 실상을 탐구한다 !![2]

- 촘스키와 블룸의 저서를 토대로 -

토다 키요시(戸田 清)[3]

'무차별 폭격'은 나찌독일(스페인의 게르니까)과 일본(중국의 중경(重慶))이 시작한 범죄지만, 미국은 그것을 더욱 확대했다(도쿄, 오사까, 히로시마, 나가사끼 등). '자유와 민주주의의 맹주', 미국의 **국가폭력**은 선주민 대학살이나 강제이주(특히, 체로키의 '눈물의 여로(旅路)'가 보여준 비극), 흑인 노예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까지 있었던 필리핀에서의 고문과 대량학살(촘스키 1999.2002, 하워드 진 1998)도 잊을 수 없다. 무장 게릴라와 민간인 수십만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동시대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필리핀에서의 미군 만행을 엄중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전후에는 독재정권의 범죄에 개입하고(1961년 콩고, 1965년 인도네시아 등) 많은 민간인을 '오폭'으로 살해했다(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또한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더불어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는데다가 몇 안 되는 '형무소 국가'에 속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와 국가폭력을 '양립'시키는 초대국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촘스키(MIT 교수, 언어학, 정치학)와 블룸(자유기고가, 전 국무성 직원)의 저작을 토대로 미국의 실상과 논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노암 촘스키, 윌리암 블룸, 하워드 진, 마이클 클레어, 제레미 브렉카, 에드워드 사이드(팔레스타인 출신), 수잔 죠지(재 프랑스), 더글러스 라미스(재 일본) 등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시든 고이즈미든 보수계 지배층의 의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군국주의의 결합**이다. 블레어 수상이 보여주는 바, '사민 정권'도 이들에게 가담하는 일이 많다(제국주의 단계와 현

1) 사전에서 'rogue'를 찾으면 대개 '惡黨(악당), ごろつき(불량자), 惡漢(악한)'이라고 나오는데 매스컴의 번역이 왜 'ならず者(불량배)國家'로 통일되었는지는 모르겠다. 2002년 3월 뉴욕 타임즈에는 '핵 깡패로서의 미국(America as nuclear rogue)'이라는 사설이 실렸다. 그것을 소개하는 글에서 토요따(豊田)는 'ごろつき國家'라고 번역했다(豊田 2002)(필자 주).

2) 이 글은 2002년 6월 23일(일) 오후 1시 ~ 4시 나가사끼대학 환경과학부에서 진행된 「자주학습회(自主學習會)」 발표문으로서, 현재 토다 교수가 작성 중에 있는 원고(2002. 5. 14)임(편집자 주).

3) 나가사끼 대학 환경과학부 조교수(평화학·과학사·환경사회학)

대 자본주의에서는 좌파도 상당부분 매수되고 있다. 또 이스라엘 노동당도 팔레스타인 사람을 탄압했다). 브레튼 우즈 기관(세계은행, IMF, WTO)과 미국정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규제완화, 민영화, 자기책임, 자유경쟁 등)은 기본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권확보를 위해서는 군사력도 불사한다.(일본에 대해서는 고또(後藤) 2002, 니노미야(二宮) 1999, 와따나베(渡辺) 1997, 2001 등이 이해하기 쉬우니 참조할 것).

1. 걸프전쟁(애비 부시)과 아프칸 전쟁(아들 부시)

람제이 클라크(1927년 생)는 존슨 정권 당시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그후에 변호사, 연구가로 사형폐지운동이나 반전운동을 했다. 그가 조사한 바로는 걸프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전국토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으며 적어도 25,000명의 시민(민간인)을 살해했다. 요르단의 적신월사(赤新月社)의 조사에 의하면 전쟁종결 1주일 전에 민간인 113,000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60%가 아이들이었다(클라크 1991). 한편 다국적군 사망자는 150명이 채 안되었다(클라크 1991). 그후에 계속된 경제 제재에 의한 이라크의 민간인 사망자는 150만 이상, 그 중 아이들이 50만명을 넘었다. 경제 제재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150만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이또오(伊藤) 1999). 1996년 50만명의 이라크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울브라이트 당시의 국무장관은 '대단히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 희생은 지불의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다(촘스키 1999.2002). 당시 외무성에서 나가사끼 대학으로 와 있던 T 조교수는 이라크 경제 제재에 대해서 '부득이 했다'고 말했다.

1989년 파월 통합참모본부장이 슈왈츠코프 사령관에게 이라크에 대한 전면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계획 입안을 요구한 이후,

1990년 1월 ~ 5월 슈왈츠코프 작전 입안
1990년 7월 이라크와의 교전을 상정한 '코맨드.포스트 연습'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클레아 2001.2002)

2001년 9월 11일의 '동시다발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미국군과 영국군은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개시했다. 미국의 뉴햄프셔 대학의 마크 헤롤드 교수(경제학)는 탈레반 발표와 매스컴의 오폭보도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12월 10일 중간집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아

프칸의 민간인 사망자가 적어도 3,767명이나 된다. 탈레반 측의 발표가 오히려 희생자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 불량 국가론의 기본 문헌

클린턴정권 말기인 2000년, 촘스키의 『불량 국가들』과 블룸의 『불량 국가(Blum 2000)』가 출판되었다. 앞의 것은 초역이 있다. 촘스키는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불량국가(rogue states)다’라고, 블룸은 ‘미국은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말했다. 촘스키의 책은 아래의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불량 국가의 집단 : 어느 나라가 그 이름에 걸맞는가?
2. 불량 국가들
3. 발칸의 위기
4. 동티모르의 회상
5. 콜롬비아 계획
6. 쿠바와 미국정부 : 다윗과 골리앗
7. 압력을 가하다 : 라틴 아메리카
8. 주빌리 2000
9. ‘회복되는 권리’ : 굴곡된 길
10. 미국과 ‘보편성의 도전’
11. 전쟁의 유산
12. 밀레니엄의 인사
13. 국내영역에서의 권력
14. 사회경제적 주권

블룸의 장(章)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것과 그들의 것 : 워싱턴의 애증(愛憎)

테러리스트와 인권침해자의 관계

1. 왜 테러리스트는 미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는가?
2. 미국이 세계에 보내는 선물 : 아프칸의 테러리스트 동아리
3. 암살
4. 미육군과 CIA의 훈련계획서에서 발췌한 것

5. 고문
6. 불쾌한 것
7. 새로운 불쾌한 것들의 훈련
8. 전쟁범죄인 : 그들의와 우리들의
9. 테러리스트의 성역
10. 폴포트 지원

미국의 대량 살해무기 사용

11. 공습
12. 열화우라늄탄
13. 클라스터 폭탄
14. 해외에서의 생물화학무기 사용
15. 국내에서의 생물화학무기 사용
16. 타국에 의한 생물화학무기 사용 장려

불량국가 대 세계

17. 미국에 의한 지구규모의 대외간섭 소사(小史)
18. 선거의 악용(간섭)

선거와 민주주의라는 물건

필리핀 ; 1950년대 CIA는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를 유포, 선거 자금을 제공, 암살 계획, 후보자의 음료에 독을 타거나 괴뢰단체를 만들기 등을 통해 선거간섭을 감행했다. 필리핀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쇼케이스(진열장)'이라는 칭송을 듣는다.

이탈리아 ; 1948년~70년대

레바논 ; 1950년대

인도네시아 ; 1955년 CIA는 수카르노파와 공산당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보수계 후보에게 1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

베트남 ; 1955년 호치민이 이길 것 같아서 미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남북통일선거를 중지시켰다.

영국령 기아나/가이아나 ; 1953년~64년

일본 ; 1958년~70년대에 CIA는 자민당에 수백만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해서 보수당 장기정권 유지에 공헌

네팔 ; 1959년

라오스 ; 1960년

브라질 ; 1962년

도미니카 공화국 ; 1962년

과테말라 ; 1963년

볼리비아 ; 1966년

칠레 ; 1964년~70년대, 미국정부는 보수당계 후보에게 대량의 자금을 제공하여 아옌데를 낙선시켰다. 70년에는 금권선거에 저항한 아옌데가 당선되고 이후 CIA는 군부 쿠데타(73년)에 협력했다.

포르투갈 ; 1974년~75년

오스트렐리아 ; 1974년~75년

자메이카 ; 1976년

파나마 ; 1984년, 1989년. 1972년 당시 노리에가 장군은 미국정부의 암살계획의 표적이었다. 그러나 84년에 CIA는 노리에가 진영에 대량의 자금을 제공해서 당선에 공헌했는데, 노리에가의 마약거래가 여전하게 계속되면서 그는 다시 미국의 적이 되었다. 89년에는 반 노리에가 진영에 1,000만 달러의 자금원조를 했지만, 노리에가가 재선되자 미국은 부정선거라고 공격했다. 89년 미국은 파나마에 침공하여 노리에가를 체포하고(마약거래혐의) 부수적 오폭으로 시민 수천명을 살해했다.

니카라과 ; 1984년, 1990년. 반 산디니스타 진영에 대한 CIA의 대량원조와 산디니스타에 대한 분열공작에도 불구하고 산디니스타가 승리했다. 이후 무력간섭으로 니카라과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국가테러를 제소, 1986년 승소했다. 90년에는 보수계에 대한 CIA의 대량자금이 힘을 과시하면서 산디니스타는 패배했다.

하이티 ; 1987년~88년

불가리아 ; 1990년~91년

알바니아 ; 1991년~92년

러시아 ; 1996년

몽골 ; 1996년

보스니아 ; 1998년

이란 ; 1953년

과테말라 ; 1954년

콩고 ; 1960년

에콰도르 ; 1961년

볼리비아 ; 1964년

그리스 ; 1967년

피지 ; 1987년

19. 트로이의 목마 : 민주주의의 국제적 증여

CIA의 괴뢰조직(외곽단체)인 ‘민주주의의 국민적 증여(NED)’는 불가리아, 알바니아, 하이티 등의 선거에 간섭했다.

20. 유엔에서의 미국 대 세계

    팔레스타인 인권, 핵군축, 반 아파르트헤이트, 우주군사화반대, 발전의 권리, 유해상품규제, 대량파괴무기 규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니카라과 제재 정지, 쿠바 제재 정지, 니카라과에서의 미국의 무력간섭을 유죄로 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지지 등의 유엔 결의에 대해, 많은 나라가 찬성하는 가운데 미국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21. 지구규모의 도청
22. 유괴와 약탈
23. CIA는 어떻게 넬슨 만델라를 28년간이나 옥중에 가두었는가
24. CIA와 마약 : ‘왜 다른가?’라고 말할 뿐
25. 유일한 초대국(超大國)은 결코 사죄할 필요가 없다
26. 미국이 침략, 공습, 살해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기업을 미국인은 진실로 믿고 있는가?
27. 미국은 어째서 자유국가에서 일탈하고 있는가?

위 두권과 함께, 전후 미국의 대외간섭의 역사를 그린 블룸의『希望を打ち砕く(Killing Hope : U.S. Military and CIA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Ⅱ, Common Courage Press, 1995)』도 필독서다. 이 책은『CIAの知られざる歴史(1986년, Zed Books)』의 증보개제(改題)판인데, 추천문을 쓴 것은 노암 촘스키, 헬렌 코르디넷트, 고오 빌달 등이다.

3. 생명의 무게 등 이른 바 ‘이중기준’이나 격차 ; 10가지 사례

① 미국 정부는 9.11 테러 희생자에게 일본 돈으로 2억 4,000만엔을 보상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오폭 희생자에게는 13만엔밖에 보상하지 않았다. 생명의 대가에서 2,000배의 격차가 난다. 1년 수입 600만엔인 사람이 40년간 일하면 2억 4,000만엔이다.

②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회장 로버트 케네디의 연봉은 156만 5,000달러(약 1억 5,000만엔)로 보팔사건(1984)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의 500배에 해당한다.(http://www.ucaqld/.com.au/community/bhopal/carbide.html). 1억 5,000만엔의 500분의 1은 30만엔이다.

③ 1995년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영국의 과학자는 선진국 인명의 가치를 도상국 인명의 15배로 계산해서 온난화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④ 사상 최대의 산업재해인 인도의 보팔사건(1984년 사망자 1만명 이상, 피해자 수십만명)을 일으킨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1981년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어주의 카나화(Kanawha) 강에 25,000 갤런(1갤런 = 3.785 리터)의 발암물질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폐기하고, 당국에 의해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200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에서 데이지 캇더 폭탄을 사용해서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살포했지만(戸田 2002),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미국 기업의 범죄는 미국정부가 처벌하지만, 미국정부의 범죄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

⑤ 1968년 6월 천안문 사건에서 중국 정부는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에서(노리에가 장군 체포를 목적으로) 미군은 수천명의 민간인을 오폭으로 살해했는데도 국제사회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하워드 진 1998, 新原 1997).

⑥ 이란.이란크 전쟁말기인 1988년 3월 16일, 이라크 정부는 이란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라크 북동부 크루드인 소도시 하랍자(인구 7만명)를 화학무기로 공격해서 약 5,000명의 크루드인을 살해했는데도(부상자 4,000명) 국제사회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호메이니 체제를 적대시하고 이라크를 지원했다. 그러나 90년 이라크 정부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수십명을 살상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걸프전쟁(1991년)에서 이라크의 민간인 수만명을 오폭으로 살상했다. 그리고 90년 이후의 경제 제재로 민간인 수백만명(반절은 아이들.고령자)을 살상했다. 또, 터키 정부에 의한 크루드인 학살 격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터키에 대한 무기수출의 증가였다(촘스키 1999.2002). 또 미 해군에 의한 이란 여객기 오인 발사 격추 사건(1988년 7월 3일)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다. 크루드인이나 이란.이라크인의 생명은 그렇게 가볍다는 얘기인가.

⑦ 미국정부(보건성)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960년 이후 일관해서 흡연억제정책을 폈다. 한편, 미국정부(통상대표부)는 타이, 한국, 일본의 정부가 미국 담배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데 대해서 자유무역에 반한다면서 이것을 철회하게 했다. 담배병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세계에서 400만명, 미국에서 40만명, 일본에서 95,000명이나

된다. 담배회사나 담배산업 지원 관청(미국 통상대표부, 일본 재무성 등)이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흡연자는 '테러 피해자(담배회사에 대해서)'임과 동시에 '테러 지원자(소비자로서 담배를 구입해서 회사를 지원하는)'이며 '이차적 테러리스트(가까이 있는 비흡연자에 대해서)'에 해당한다. 미국의 간접흡연 사망자는 연간 약 5만명, 일본은 5,000명이라고 한다. 촘스키는 자기의 흡연습관(바스키 1997.1998 파이프 담배 사진)을 문제시하지 않고, 담배자본과 미국 정부를 비판(촘스키 1992.1994)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다.

⑧ 미국, 세계 은행,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도상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강제하고(농산물 관세제로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용인한다(농산물의 고율 관세나 수출보조금, 지적 소유권 보호 등). 인도의 식물 니임처럼 도상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용해 온 것에 대해서 선진국 기업이 식물 유전자 특허를 따려는 것은 실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하이티의 쌀 자급이나 닭 생산도 파괴되었다(촘스키 1999.2002). 마틴 코어(말레이지아)의 발언 참조(榊原 2002).

⑨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 국제 법정에서 밀로세비치의 범죄(민족 정화)는 재판받지만,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의 범죄(공습에서 오폭 다발, 우라늄탄이나 클라스터폭탄의 사용, 공습에 의한 민족정화 격화의 유발과 세르비아 민주세력 후퇴)는 면책이다. 50년전, 도쿄 재판에서 토오조오 히데끼(東條 英機)나 마쓰이 이와네(松井 石根)의 범죄(침략전쟁)는 재판했는데, 해리 트루만(원자탄 투하 등)과 히로히토 일본천황(침략전쟁의 괴수로서의 책임)은 면책된 것과 같이 '승자의 재판'이며,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2002년 5월 13일 NHK クローズアップ(클로즈 업) 現代「전범법정이 국가원수를 재판한다」 참조).

⑩ 샤론은 레바논 침공(1982년) 등을 모르는 척 하면서 팔레스타인 과격파의 자폭테러를 비난한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원인(遠因)을 만든 80년 전의 '3중기준 외교(아랍과의 약속, 유다(유태인)와의 약속, 영불비밀협정)'을 자기비판(사죄)하지 않았다.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 군사원조를 자기비판하지 않았다.

미국의 인권외교에서 이른바 '이중기준'은 명확한 사실이다. 우호국(이스라엘, 터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수하르트 시대의 인도네시아, 1988년까지의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미국은 관용적이었고, 때로는 무기원조조차 서슴치 않는다(이스

라엘, 터키). 비우호국인 적대국(유고, 1990년 이후의 후세인 정권 이라크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미국은 엄격하고, 민간인 오폭의 위험성조차 걱정하지 않는다. '적대국의 적대국은 우호국'의 경우도 있다. 정권 붕괴 후의 폴 포트파(베트남의 적)에 대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수하르트 정권 붕괴 후(1998년) 인도네시아군에 의한 동티모르의 만행도 묵인했다. 한편, 촘스키의 '이중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은 일관된 것이다'라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촘스키 1999.2002).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기준은 일관해서 국익주의인데, 필요에 따라서 인권레토릭(1999년 코소보 공습은 인도적 개입이라고 했다)도 활용한다는 말이다. 메카시즘 시대에 '비미(非美)활동(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념국가(이데올로기 국가)로서 미국의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케네디처럼 WASP 이외에서도 지배층으로 들어간다)이 내세우는 '미국적인 것'은 '선(善)'이 된다. '비미적(非美的)'인 것은 때때로 배제의 대상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트루만 독트린(1947년)에서는 소련 봉쇄(및 중동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파레비 국왕의 이란은 전략적으로(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 소련은 붕괴됐지만 중동 석유자원은 계속해서 필요하며, 더구나 카스피해 주변의 석유, 천연가스 자원도 필요해서 아프칸에 친미정권도 필요하다(카르자이는 서방측 석유기업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심이 된다). 인도네시아도 산유국.광물 자원대국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박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박해에 비해서 터키의 쿠르드인 박해, 콜롬비아의 반체제파 박해는 눈에 띄지 않지만, 모두 군사원조의 주요대상이다. NATO 멤버인 터키 공화국의 쿠르드인 박해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촘스키 1999.2002)까지 면책되고 있다. 먼로 독트린(1823년) 이래 중남미는 '뒷마당'이고, 과테말라나 콜롬비아의 인권의 위기는 아젠다가 되지 않는다. 부시 독트린(2001년)은 선악일원론(배경에 기독교 원리주의)와 단독주의를 특징으로 한다(공화당 우파와 펜타곤의 발언력이 강하고, 시장원리주의, 군사주의와 함께 3개의 원리주의). 소련의 위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날조하는 노력은 '악의 축(the axis of the evil, 이라크, 이란, 북한)'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터키(쿠르드),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콜롬비아, 과테말라(인디오), 남아프리카(흑인과 주변국), 이라크(1988년까지 쿠르드)의 국가테러나 파나마(1988년까지)의 일탈행동은 면책되면서 이라크(1990년 이후), 유고의 국가테러나 니카라과, 쿠바, 수단, 리비아 등의 '일탈행동'은 제재의 대상이 된다. 면책과 제재의 판단기준은 국가이익(석유자원, 지정학적 중요성 등)과 동아리 의식(블랙 아프리카의 인권의 위기는 경시되는 등)이다. 터키는 EU가 아

니지만(터키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NATO 멤버이기 때문에 터키의 국가테러에 대한 미국의 방치는 책임이 크다.

인권의 위기에 대응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촘스키 1999.2002).

① 비인도적 개입(위기를 격화시킨다) ; 예로는 NATO의 코소보 공습이 있다(민족정화를 격화시키고 현지의 민주세력을 약화시켰다).

② 비인도적 비개입(방치에 의해서 위기를 격화시킨다) ; 예로는 동티모르가 있다.

③ 인도적 개입(위기를 경감시킨다) ; 예로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1978년)이 있다. (폴 포트 정권이 붕괴된 후에 미국은 폴 포트파를 지원했다).

개입에는 무력개입 외에도 비폭력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비폭력평화대' 등 NGO에 의한 것도 모색되고 있다.

미국의 수단 공습(1998년)은 원죄(冤罪)이며(생물무기공장이 아니라 의약품 공장이었다) 그것 때문에 의약품 생산의 절반이 파괴되어 큰 인명피해를 낳았다(촘스키 1999.2001)

4.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공습리스트

중국 1946, 1950~53
한국·조선 1950~53
과테말라 1954, 1967~69
인도네시아 1958
쿠바 1959~61
구 벨기에령(領) 콩고 1964
페루 1965
라오스 1964~73
베트남 1961~73
캄보디아 1969~70
그라나다 1983
리비아 1986
엘살바도르 1980년대
니카라과 1980년대
파나마 1989
이라크 1991~99

소말리아 1993
보스니아 1995
수단 1998
유고슬라비아 1999
아프가니스탄 2001~02

※ 출전 : 아룬다티 로이(로이 2001.2002, 坂本 외 2002)에 아프가니스탄을 추가. 블룸의 책(2000)에도 거의 같은 표가 있다. 캄보디아 공습은 미국 국민에게도 감춰져 있었다(하워드 진 1998). '아프가니스탄 2001~ 02'가 21번째다. 21세기는 '21번째' 공습과 함께 시작되었다.

5. 미국 정부에 의한 암살계획

1949년 김구(金九) 한국야당 지도자
1950년대 CIA와 네오나찌에 의한 서독의 많은 정치활동가 표적리스트
1950년대 주은래(周恩來)
1952년대, 1962년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1951년 김일성(金日成) 북조선 수상
1953년 무하마드 모사데그 이란 수상
1950년대 중반 크라로 M 렉트 필리핀 야당 지도자
1955년 가말 압둘 낫셀 이집트 대통령[4)]
1959, 1963, 1969년 노로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지도자
1960년 압둘 카림 캇셈 준장 이라크 지도자
1950년대~70년대 호세 피그에레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생애에 두차례
1961년 프랑소와 '파파둑' 듀바리에 하이티 지도자
1961년 파트리스 에메리 루뭄바 콩고(자일) 수상[5)]
1961년 라파엘 트루히요 도미니카 공화국 지도자
1963년 고딘디엠 남베트남 대통령
1960년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고위 관리
1965년 프란시스코 카마뇨 도미니카 공화국 야당 지도자

4) 1970년 이슬람의 과격파에 의해서 암살
5) 같은 해 콩고 군부 베르줌 정부와 공동으로 암살에 성공(영화 「루뭄바의 절규」 참조)

1965년~66년 샤르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1967년 체 게바라 쿠바 지도자

1970년 살비돌 아옌데 칠레 대통령[6]

1970년 르네 슈나이더 장군, 칠레 육군 사령관

1970년대, 1981년 오말 트리호세 장군 파나마 지도자

1972년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 파나마 정보부 지휘관[7]

1975년 모부트 세세 세코 자일 대통령, 루뭄바 암살에도 관계

1976년 마이클 만레이 자메이카 수상

1980~86년 무앙말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 생애 수차례 계획

1982년 아야트라 호메이니 이란 지도자

1983년 아메드 드리미 장군, 모로코 육군 사령관

1983년 미겔 데스코트 니카라과 외무장관

1984년 산디니스타 국민평의회 9인의 지도자 comandante

1985년 시크 무하마드 후세인 파다라 ― 레바논의 시아파 지도자(암살계획으로 80명 사망)

1991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지도자

1998년 오사마 빈 라덴 이슬람 무장세력 지도자

1999년 시로보단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8]

※ 출전(出典) : Blum 1995, 『Killing Hope』, Common Courage Press p. 453

6. 부시 정권의 행보

2000년

11월 7일 ; 미국대통령 선거

11월 14일 ; 부시진영 ‘승리’를 강조

12월 22일 ; 미 대통령선거의 플로리다주 개표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이 있어 연방최고재판소로부터 결정을 되돌려받은 플로리다주 최고재판소는 수작업으로 재집계한다는 기준설정은 ‘주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서를 냈다. 고어 부통령과 부시 차기

6) 1973년 쿠데타 당시 자살로 내몰리다. 암살설도 있다.
7) 1989년 파나마 침공시 체포
8) 2002년 현재 구 유고 전범(戰犯) 법정의 피고(被告)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결정서가 이번 선거에 관한 최후의 법정발표라고 표명했다. 두 진영의 법정투쟁은 완전히 끝났다.

2001년

1월 17일 ; 조지아주 포트베닝에서 미국정부의 자금으로 중남미의 국가테러리스트(비밀경찰직원 등)를 훈련시키는 '스쿨 오브 아메리카(SOA)'를 개편해서 '안전보장을 위한 서반구협회(WHISC)'를 발족시켰다.

1월 20일 ; 조지 부시 전 텍사스 부지사가 미국 제 43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부시정권의 각료에는 에너지, 자동차, 군수, 바이오 등 재계의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 이에 대한 것은 坂本 외 2002를 참조

2월 10일 ; 하와이 오아프섬 먼 바다에서 에히메현립(縣立) 우와지마 수산고등학교의 어업실습선 에히메마루가 미해군 핵잠수함 그림빌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2월 14일 ; 파월 국무장관은 지역분쟁이나 내전에서 야기되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을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설치를 결정한 로마조약에 대해서 '부시정권은 ICC를 지지하지 않으며 조약의 비준도 안한다'고 언명했다.

3월 28일 ; 백악관 홍보관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탈퇴를 표명했다.

4월 2일 ; 미국의 전자정찰기 EP3와 중국군 전투기가 접촉한 사고에서 접촉지점은 중국측이 설정한 방공 식별권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일 군사관계자 담화에서 밝혀졌다. 미군은 정보수집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중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의 방공 식별권내에서 비행하는 일이 많았다.

4월 20일 ; 한미 연합사령부가 늘 실시하는 '연합전시증원연습'을 개시했다.

5월 1일 ; 부시 대통령은 '안전보장전략'을 발표, 핵탄두를 감소시키고 미사일방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이 누군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 시대의 위협을 강조했다. 러시아에게 공동투쟁을 제의하고 동맹국의 이익도 호소했다. ABM조약폐기와 세계적 미사일 방위망구축을 선언했으나 START(전략무기삭감조약교섭)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억지력 강화가 확실하다.

5월 1일 ; 호주와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탄템스라스트'가 호주에서 시작됐다.

5월 3일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유엔인권위원회(본부 – 제네바) 회원국의 변화가 있었다. 1946년 창설당시의 멤버로 선출된 미국은 처음으로 낙선했다. 미국이 낙선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아 외교소식통은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대인지뢰의 금지나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조약에의 서명거부 등 국제협조에 지나치게 무관심한데서 반발을 샀다’고 말했다.

5월 15일 ; 미국과 태국, 싱가포르가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 ‘코브라골드’가 타이 북부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참가한 일본을 포함해서 9개국이 옵져버로 훈련을 견학했다.

6월 14일 ; 미국정부는 미국의 오폭사고 등으로 주민이 희생되고 격렬한 항의운동이 일어난 자치령 푸에리토리코의 미에케스섬에서의 군사연습을 2003년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6월 17일 ; ‘국가에너지 정책’을 발표, 약 20년만에 원전추진으로 전환, 체니 부통령은 ‘에너지 절약은 개개인의 기호를 속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6월 29일 ; 오끼나와 중부 차탄미하마의 주차장에서 미군병사의 부녀폭행사건

7월 9일 ; 프라이서 대통령 보도관, 파우파 국무성 보도관을 통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방치하고, 자연스레 없어지게 하는 방침을 시사

7월 23일 ;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금지조약 체결국 회의에서 미국대표가 ‘검증제도에 효력이 없다’면서 의정서 작성에 걸림돌이 되었다.

8월 23일 ; 부시 대통령은 ABM제한조약이탈을 표명

8월 28일 ; 이지스 순양함 빈센트의 헤메지 기항

9월 3일 ; 더반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의 인종차별반대 세계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대표단이 퇴장. 이스라엘 비판(팔레스타인문제)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

9월 4일 ; 뉴욕타임즈 스쿠프기사에서 클린턴정권 이래의 세균무기 비밀연구의 존재가 밝혀졌다. 클린턴시대에 네바다에 세균공장, 부시정권 발족직후에 펜타곤이 탄저균을 유전자조작해서 특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9월 11일 ; 동시다발테러 발생, 사망자는 당초 약 6,700명이라고 공표. 뉴욕시는 약 4,800명이라고 하향수정. AP나 뉴욕타임즈는 약 2,600명이라고 하향수정. 2001년 12월 19일 시점에서 3,225명으로 추산(아사히신문 2002년 1월 8일)

9월 20일 ; 부시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대테러총력전쟁을 선언. ‘미국편인가? 테러리스트편인가?’라고 했다.

9월 26일 ; 미 에너지성은 네바다주의 실험장에서 부시 취임 후 최초의 미임계(未臨界)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 작년 12월 이래의 실험에서 1997년 7월부터 계산하면 14회째

10월 5일 ; 플로리다의 신문사 편집자 탄저균 감염사망

10월 7일 ; 미·영군 아프가니스탄 공습개시

10월 8일 ; 미군의 공습이 이어지는 아프칸의 수도 카불에서 유엔에서 지뢰제거에 종사하는 NGO사무소가 폭격당하고 아프칸직원 4명 즉사, 4명은 부상, 이슬라마바드의 유엔관계자는 9일 회견에서 밝힘

10월 10일 ; 미국은 9일의 공습에서 5~8기의 폭격기와 8~10기의 항모 탑재기를 사용, 탈레반의 방공시설이나 비행장, 테러조직의 훈련시설 등 6개소의 목표를 공격했다. 또, AFP통신에 의하면 국방성 당국자는 지하 깊숙한 데 있는 방공호 등의 군사시설을 폭파하는 레이저 유도탄 '벙커 버스터' CBU28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폭탄은 걸프전쟁에서 처음 사용되고, 99년 유고 공습에서도 지하에 은닉한 유고군 폭격기의 파괴 등에 사용되었다.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간부들이 잠복해 있음직한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벙커 버스터'는 관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화우라늄이 사용된다고 여겨진다.

10월 11일 ; 낭가할 현(縣) 칼람에서 오폭으로 민간인 다수가 사상, 탈레반 발표에서는 약 200명, 생존주민의 증언으로는 100명 사망

10월 12일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0월 11일 공습에서 '클러스터탄(다발폭탄)'을 미군이 사용한 데 대해서 파키스탄에서는 '비인도적 폭탄의 사용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정치가, 종교단체, 군사전문가 등이 대미(對美) 비난을 한층 더 강화했다. 미국이나 구소련의 무기체계에 밝은 하미드 전 국방성통합정보국(ISI)장관은 '클러스터 폭탄은 베트남전 당시보다 개량되었고, 위력이 월등하게 좋아졌다. 미군이 군사목표만 공격대상으로 한다는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민중의 살육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10월 19일 ; 미군이 아프칸에서 지상작전 개시

10월 26일 ; 미국방성은 아프칸 공습 중에 수도 카불의 적십자 국제위원회창고를 오폭했음을 인정했다. 인위적 실수와 유도장치의 오작동이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적십자와 주택지역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공격은 진심으로 유감'

10월 26일 ; 펜타곤은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투기를 통합하는 차세대형 전투기(JSF) F35의 개발생산을 군수산업의 큰 손 록히드마틴사에 발주한다고 발표했다. 40년까지 약 3,000기를 발주할 계획인데 발주 총액은 2,0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 공전의 거액수주

10월 29일 ; 아프칸의 보도에 의하면 탈레반정권의 압바스 보건장관과 아프칸인 의사들은 29일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군이 아프칸 폭격에서 화학무기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10월 29일 ; 일본국회에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 자위대법, 개정 해상보안청법 성립

11월 1일 ; 미군이 아프칸의 카자카이댐을 공습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고. 제네바협정 위반

11월 1일 ; 탄저균테러의 경험을 거울삼아 조사체제확립, 형법강화, 감염증대책 개선, 생물과학자의 윤리기준 등 종래와 달리 생물무기금지조약 강화를 제안

11월 5일 ; 펜타곤의 리크(leak)에서 데이지컷터(기화폭탄) 사용이 밝혀지다(11월 6일 신문보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는 동시에 발암물질 프로블렌 옥사이드를 살포하는 대형폭탄이다

11월 5일 ;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본결의(핵무기의 전면적 폐지를 위한 CTBT의 발효촉진을 요구한) 투표에 미국과 인도만이 반대 투표했다.

11월 11일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를 위한 촉진회의'가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나 미국 불참

11월 12일 ; 탈레반 아프칸 수도 카불에서 철수

11월 13일 ; 카불 함락

11월 13일 ; 부시대통령이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미국의 특별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에 서명. 누구를 소추하는가는 대통령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에 재판은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없다. 군사법정은 증거채택 기준도 엉성하고 비밀보장도 쉽다.

11월 19일 ; 제네바에서의 생물무기금지조약 운용검토회의에서 이란, 이라크, 북조선 등 6개국을 '생물무기개발 의혹국가'로 지명하고 비난하다.

11월 20일 ; 워싱턴포스트, 부시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국력총동원 당시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필적한다'고 논평

12월 1일 ; 토라보라의 동굴지대와 그 부근마을의 공습에서 115명의 민간인이 사망. 카르자이 정권측의 군인들도 무선으로 공격중지를 호소했다. '국경없는 의사단'은 여성, 아이들을 포함한 72명의 시체를 수용

12월 2일 ;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발각되어 경영위기에 처해있던 미국의 엔론(에너지 도매상으로 세계최대 큰손)은 2일 일본의 회사갱생법에 해당하는 미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뉴욕의 파산재판소에 신청했다. 엔론은 부시정권에 파고 들어가서 에너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월 3일 ; 뉴욕타임즈는 특종기사에서 일련의 탄저균 사건에 사용된 균의 분말은 미군이 개발한 초미립자 탄저균과 거의 동일한 것이며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대상을 군시설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의 배후에 미군의 생물무기 개발에 종사했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

12월 7일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던 생물무기금지조약의 운용검토회의의 최종일에서, 조약

강화에 있어 어디까지 법적 구속력을 주는가 하는 분야에서 미국이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회의가 결렬상태로 빠져서, 후에 행동지침이 될 '최종선언'을 발표할 수 없었다.

12월 10일 ; 미국 뉴햄프셔대학의 마크 헤롤드 교수(경제학)가 아시아와 유럽의 보도를 집계해서 아프칸 민간인 오폭사망자는 12월 6일 현재 3,767명이라는 추계를 발표.

12월 11일 ; 미국 ABM제한조약이탈(일방적 탈퇴)를 결정. 13일 통고

12월 14일 ; 네바다주에서 클린턴 정권부터 계산해서 통산 15회째의 미임계핵실험이 있었다.

12월 20일 ; 카르자이 의장 취임식 출석을 위해서 카불로 가는 사람들의 자동차 행렬을, 미군이 오폭

12월 22일 ; 아프칸의 잠정 행정기구 발족

12월 28일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미·필리핀 양군이 2002년 1월에 테러조직 압사야프 소탕전에 목적을 둔 합동군사연습을 예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2월 29일 ; 미군이 팍치아현의 마을을 공습할 때 결혼식장으로 쓰던 건물을 탈레반의 탄약고로 오인해서 공격.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 사망

12월 30일 ; 미군이 아프칸 동부 팍티아주의 촌락을 공습, 주민 약 100명 사망

날짜 미상 ; 환경보호단체 시에라클럽이 테러후에 미정부 비판의 자숙을 선언

2002년

1월 8일 ; 미정부는 핵전략의 총체적 개편계획을 의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같은 날짜로, 워싱턴포스트는 92년부터 동결된 지하 핵실험을 앞으로 2년 이내에 재개할 가능성을 통고할 것 같다고 보도. 럼스펠트 미국방장관은 '실험의 동결은 계속된다'고 부정했지만 간접적으로 장래재개의 속셈을 내비쳤다.

1월 9일 ; 펜타곤은 핵전략의 지침 '핵전략재검토(NPR)'의 개요를 발표. 명확하게 CTBT의 부인을 지지. START(전략무기삭감조약교섭)과정의 포기. 핵실험재개 준비기간 단축. 삭감된 핵탄두의 신속대응전략(Responsive Force)에 편입을 표명. 이것은 CTBT의 반대나 ABM조약탈퇴와 함께 핵군축에서의 '불가역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1월 11일 ; 미국이 대아프칸 작전에서 구속한 탈레반과 테러조직 알카에다 멤버중 20명을 쿠바의 관타나모미군기지로 이송. 럼tm펠트 국방장관은 구속된 군인들에 대해서 '포로가 아니라 불법전투원'이라 말하고 전시 포로대우를 결정한 제네바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 20명 전원은 수갑을 차고, 이송중에 한사람에게는 진정제를 주사했다. '불법전투원'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에 없으며 미정부가 만든 것이다.

1월 24일 ; 칸다하르의 북동 160킬로미터에 있는 오르가주에서 거짓정보를 접한 미군이,

학교교사와 카르자이 정부의 행정부를 습격. 탈레반으로 오인 21명을 사살(피터 아네트 기자)

1월 24일 ; 프라이서 미대통령 보도관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장을 연금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책임은 의장측에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정부내에서는 의장이 인솔하는 PLO의 워싱턴 사무소폐쇄를 포함해서, 관계를 단절하는 안을 내비쳤다.

1월 29일 ; 부시 대통령의 일반교서 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북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 군사비 확대를 강조

2월 13일 ; 에너지성이 통산 16회째의 미임계핵실험을 처음으로 미·영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발표

2월 14일 ; 네바다주의 지하실험장에서 미·영 공동으로 미임계핵실험 실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사(死)문화를 노리는 부시정권은 영국을 끌어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가 일본에 오기 직전에 실시한 것은, 피폭국 일본에 대한 무례함으로 보인다. 고이즈미수상은 ‘별다르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용인자세를 보였다.

2월 14일 ; 부시 대통령이 온실효과 가스삭감대책을 발표. 10년후 GDP당 배출량을 18% 감소시키겠다고 하지만 경제성장전망과 아울러 생각하면 현재보다 12%증가, 90년에 비해 30%증가이기 때문에, 총량규제에서 미국에 7%감소를 할당한 교토의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2월 20일 ; 럼tm펠트 국방장관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허위정보의 유포도 불사하지만 동맹국을 기만하는 일은 없다고 언명

2월 ; 미국의 저명지식인 60명은 대테러전쟁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 마이클 월스아 등 베트남반전 운동 참가자도 참여.

3월 1일 ; 미군이 아프칸 동부에 격렬한 공습개시

3월 9일 ; LA타임즈가 입수한 펜타곤의 기밀문서 「핵전략재검토(1월 9일 개요를 발표)」의 비공개부분에 의하면 부시정권은 러시아, 중국, 북조선,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7개국을 대상으로 비상시에 핵무기사용 계획책정과 더 작은 핵무기 개발을 건의했다. 핵사용이 상정되는 경우는 ① 비핵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불충분한 목표 ② 핵, 생물,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한 보복 ③ 예상을 초월하는 군사상의 전개를 명기.

3월 13일 ; 볼튼 국무차관(안보담당)이 아사히 신문기자와 회견, 생물·화학무기에 대한 핵 선제공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 공격의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고, 유엔사찰을 거부하는 데 따르는 정전결의 위반과 유엔헌장 51조(개별적·집단

적 자위권)을 언급

3월 14일 ; 미국의 민간군사문제연구소 글로벌시큐리티가 펜타곤의 기밀문서 「핵전략재검토」의 발췌를 웹사이트에 게재. 펜타곤은 지하관통력이 큰 신형 핵폭탄개발을 제창하고 동결중인 핵실험 재개가 필요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4월 4일 ; 중동 위기타결을 위해 파월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여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결정

4월 11일 ; 워싱턴포스트지에 의하면,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구상에 대해서 핵탄두 탑재 요격미사일 개발도 새로 검토하고 있다.

4월 15일 ;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스라엘에 의한 학살 비난 결의안을 채택. 미군은 이라크 남부의 방공시설 폭격

4월 16일 ; 영국의 각 신문 톱기사로 '제닌 학살 의혹'을 보도. 영국의회도 비난

4월 19일 ; 제닌 학살의혹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사무총장 주도로, 조사단 파견을 만장일치로 가결. 부시는 '샤론은 약속대로 철수했다. 그는 평화인이다'라고 발언.

5월 6일 ; 부시정권이 국민의 무기소유를 조건부로 승인한 종래의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무기소지와 무기휴대 자체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생각을 표명한 데 대해서, 사법성이 최고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에서 밝혀졌다. 부시의 지지기반이기도 한 전미국 라이플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의 총기규제나 소형무기 무역의 규제문제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5월 9일 유엔본부에서 8일부터 개최되는 '어린이 특별서미트'에서 채택한 문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신중절이나 18세미만의 사형금지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이 원인의 하나. 문서초안이,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어린이 권리조약'을 전제로 하는 데서 미국은 반발

5월 13일 ;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 삭감에 합의. 러시아는 삭감 핵의 폐기를 주장했는데 삭감 핵탄두를 재배치할 수 있게 보존하고 싶다는 미국의향을 일부 용인

※ 출전 : 아사히신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참고로 토다(戸田)가 작성

7. 부시정권(2001년 발족)의 각료와 재계의 연계

앤드류 카아드(수석보좌관) ; 전 미국자동차공업회장, 제너럴모터스의 수석 로비스트

콘드리자 라이스(국가안전보장 담당보좌관) ;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전 대학교수(국제정치학), 셰브론사 임원, 찰스 슈와브사 임원, 트랜스아메리카사 임원, 국익과 지정학적 관점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의 입장

미치 다니엘스(행정관리 예산국 국장) ; 전 이라이리리사 부사장

존 그라함(행정관리 예산국의 정보규제부부장) ; 전 하버드리스크분석센터(다우케미칼사, 화학공업회, 염소화학협의회 등이 출자하는 싱크탱크)소장,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의 대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은 편익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코스튼(백악관 환경기준에 관한 평의회 의장) ; 제너럴일렉트릭사와 애틀란틱 리치필드사가 수퍼 펀드법에 의한 폐농장부지 정화명령에 불복, 환경보호청을 제소한 재판에서, 양사에 법적 조언

게일 노튼(내무장관) ; 전 유나이티드사(석탄,석유,가스) 로비스트, '환경주창자 연합' 회장, '지구의 벗' 조사에 의하면 이 연합에는 콰즈블루잉사, 미국산림제지협회, 화학공업회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스티븐 크라일즈(내무장관 보좌) ; 전 유나이티드사 로비스트, 압력단체 '전국환경전략' 부회장, 이 단체에는 옥시덴탈, 페트로리암, 미국광산업 협회, 에디스 일렉트릭사 등이 참가하고 석탄석유전력업체의 이권을 대표.

윌리엄스 마이어즈(내무성 민사변호사) ; 전 미국목축업자협회와 불하공유지협회의 로비스트

린더 피셔(환경보호청 부장관) ; 전 몬산토사(농약,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정부담당부사장

앤 베네만(농무장관) ; 전 프루프즈사(과일·채소) 로비스트, 칼진사(바이오테크놀러지 개발) 임원

프란시스 프레이크(에너지 부장관) ; 전 GE의 상급부사장, 이 회사는 수퍼펀드법 적용의 오염지역 수 최다(47개)

로버트 카아드(에너지 차관) ; 전 카이자힐사(폐쇄된 콜로라도주 록키프랏츠 핵무기공장에서, 원자력안전기준위반으로 100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물어낸 핵폐기물 정화업자)사장

도널드 에반스(상무장관) 전 톰브라운사(석유기업) 임원

노먼 미네타(운수장관) ; 일본계 미국인, 전 록히드마틴사 부사장

토미 톰슨(보건성 장관) ; 필립모리스 주주

이레느 차오(노동장관) ; 전 도르프즈사와 루클로룩스사 임원

폴 오닐(재무장관) ; 전 알코아사(알루미늄) 회장, 인터내셔널페이퍼사장, 이스트만코닥사와

루슨트테크놀러지사 임원

도널드 럼스펠트(국방장관) ; 전 GD사 사장, 케록사, 기레아데사이언스사, 트리뷴사 임원

토머스 산소네티(환경자연자원 담당차관) ; 레이건 및 부시정권에서 근무하고, 변호사로 광산회사, 석탄업계의 대리인, 광산업의 이권을 대표하고 국유지에서 다시 채광할 필요를 주장

※ 출전 : 월드워치연구소 조사에 의한다. 『非戰(坂本 외 2002)』에서 작성(각료이외에는 체니 부통령 부인도 록히드 마틴사 주주).

8. 벨기에 인권정책의 건투(健鬪)

벨기에는 1999년 2월에 국제인도법위반처벌법을 개정하고, 국제범죄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나섰다. 벨기에정부는 피노체트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하고 영국에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영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 학살사건(1982)의 생존자들은 아리엘 샤론(당시 국방상, 現 수상)을 고발했다(前田 2002). 벨기에 외상은 2002년 2월 의회에서 루뭄바암살(1961)에서 벨기에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다(岡埼 2002).

9. 미국의 사전에는 ‘사죄’라는 말이 없다.

벨기에 정부와는 다르게 CIA나 미국정부는 루뭄바 암살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해군에 의한 이란여객기 오발 격추사건(1988, 200명 사망)에 대한 사죄도 또한 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건으로 81년 리비아 여객기 격추, 87년 이란여객선 격침, 1989년 리비아 여객기 두 대의 격추가 있다(Blum 2000). 에히메 마루 침몰 사건(2001년) 등.

10. 베트남과 니카라과의 선전(善戰)

베트남은 미국의 군사간섭을 물리치고 1975년 남북통일에 성공했다. 니카라과는 미국의 국가테러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86년에 승소, 87년 유엔총회에서 판결지지결의를 얻어냈다. 또, ICJ는 10년 후에 핵무기사용은 일반적으로 위법이라는 권고적 의견(1996)을 제

출했다. 미국이 반 산디니스타 진영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원조해서 산디니스타정권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90년 비오레타 차모로정권이 성립되었다. 차모로는 91년부터 세계은행,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을 받아들이고 실업률의 급증을 비롯해서 국민은 비참한 생활을 감수한다. PARC(아시아.태평양 자료 센타) 비디오「죽음을 부르는 채무 ; IMF, 세계은행과 니카라과」참조(1996.1998).

11. 민중법정

일본군 종군 위안부제도를 재판하여 '히로히토 유죄' 등의 판결을 한 '여성국제전범법정' 2000년에 프로법률가가 참가한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베트남전쟁의 미군을 재판하는 러셀법정, 걸프전쟁의 미군을 재판하는 클라크법정(클라크 1992), 조선전쟁의 미군을 재판하는 법정 등이 개정되었다(前田 2002). 마에다(前田) 교수는 아프칸 전쟁에서의 미군 범죄를 재판하는 민중법정을 제안하고 있다(前田 2002). 버트란트 러셀과 럼제 클라크의 시도는 도쿄재판 규범, 뉴른버그 규범(평화에 대한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의 보편적 적용을 지향하는 것이다. 도쿄재판에서 일본의 범죄 일부가 단죄되었고 일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면책되었고(생물화학무기 등), 또 미국의 범죄는 면책되었다(원자탄 투하 등). 이러한 '불공평', '이중기준', '모순'은 민족파(民族派)에게 구실을 주었다. 민족파의 상당부분은 모순을 후진(後進)적으로 타개하려 했고("미국을 재판하지 않으니까, 일본도 재판하지 말라"), 평화운동의 유지(有志)는 모순을 전향(前向)적으로 타개하려 한다("일본을 재판하려면, 미국도 재판하라").

12. 형무소, 경찰, 원죄(冤罪)대국〔인권소국(人權小國)〕으로서의 미국

「형법에 통제된 미국인구(1995)」

수감인구 ;

인구전체 – 135명중 1명

흑인남성 – 24명중 1명

20대 흑인남성 – 9명중 1명

형법에 의한 통제중의 인구 ;

인구전체 – 37명중 1명
흑인남성 – 13명중 1명
20대 흑인남성 – 3명중 1명
(※ 출전 酒井 2001)

수감인구 ; 형무소 수감인구 1980년의 50만명에서 1995년 150만명으로 격증,
그 중 약 절반이(75만명 이상)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법에 의한 통제중 ; 수감인구 및 가석방, 보호감찰 합계

1930년~69년 사형 집행수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4%(3,817명중 2,066명),
1972년의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戸田 1994),
군인 중에서 흑인비율도 크다.

199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에스닉 마이너러티(아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계, 아시아계)의 살해가 급증하고 '경찰의 만행(蠻行, police brutality)'으로 문제가 된다(酒井 2001).

영국의 사형폐지는 원죄형사(冤罪刑死)의 발각이 하나의 계기였다(団藤 1997, 암네스티 1999). 프랑스에서도 1976년의 원죄형사(라뉴치사건)의 발견이 사형폐지의 방아쇠가 된 것이다(페로 1978 1995). 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유죄가 되고 나중에 무죄로 판명된 자가 350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 판결확정 전에 무죄로 판명된 것이 5명, 나머지는 판결확정 후였다. 판결확정 후에 무죄인 사람 중 구금형이 206명,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이 139명이었다. 139명중에 사형집행 후에 무죄가 판명된 사람은 23명이었다(団藤 1997). 平澤貞通씨가 고령으로 옥사한 것도 어렴풋이 원죄를 알게된 역대 법무대신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西武雄씨도 원죄형사였다고 생각한다(古川 1991). 고전적으로는 1911년의 대역사건(幸德秋水 등)에서 많은 원죄형사가 발생했다. 최근 뉴스에서는 1917년 백인 임신부를 살해한 용의로 원죄형사한 흑인남성 존 스노든씨가 8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週刊 金曜日(2001. 6. 15)」). 미국의 인종차별재판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원죄형사의 가능성을 재생산하고 있다(압제말 1995.2001). 현재 미국에 약 3000명, 일본에 약 50명의 사형수가 있다. 두나라 모두 과거에는 적어도 두자리수 이상의 원죄형사자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상 커다란 원죄형사는, 중세말부터 근대초기까지 유럽, 미국의 마녀재판에서 약 20만명이 단죄되었다고 한다(바스토우 2001).

통계적 검정에서는 제 1종 에러(조급한 판단) : 대립가설이 틀렸는데도 채용해 버리는 것과 제 2종 에러(간과) : 대립가설이 옳은 데도 채택하지 않을 때가 있다. 형사정책에서는 제 1종 에러(원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추정무죄원칙), 환경정책에서는 제 2종 에러(유해물질 간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예방원칙) 것이 근대 인권사상이다. 형사정책에서 제 2종 에러방지에 역점을 두는 것은 치안우선 사상이며, 환경정책에서 제 1종 에러방지에 역점을 두는 것은 기업보호 사상이다(戸田 1999). 추정무죄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1789)이나 세계인권선언(1948)에 명기되어 있다. 예방원칙은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독일, 북유럽 등). 원죄가 많은 나라는 추정무죄원칙으로 뒤쳐지고 있다. 빈 라덴은 '추정유죄'인 채로(유죄의 입증이 안되는 상태) 공습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인권조약비준이 적은 데서 볼 수 있듯 '인권 세계화'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경제 세계화'에서는 앞장서고 있다(上村 2001). '원죄형사'와 '공습에 의한 민간인 오폭사'는 국가폭력장치의 오작동으로 공통적이고, 오폭의 다발은 원죄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보족(補足) ; 촘스키와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적·아나키즘적 전망(촘스키 1971·1975)'
폴 굿맨(1911~1972), 머레이 북친(1921~), 노암 촘스키(1928~),
조제 보베(1953~) : 프랑스 농민연합, 맥도널드 해체, 아라파트 의장공관 인간방패,
케이티 시에라(15세) : 아프칸 공습에 항의하여 반전 T - 셔츠, 퇴학으로 내몰리다.

※ 참고 문헌[9)]

9) 참고문헌은, B5 용지 3장 가량 분량으로 약 130권의 책(일본어 책, 영어 책 포함)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상의 곤란함과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고려할 때 이 글에 덧붙이지 않고, 「상계동 모임」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anarchism)의 자료실에, 스캔을 떠서 올려두기로 했다. 관심있는 분은 이 사이트에서 받아보시길……(편집자 주).

환경과 反차별 1호

1. 전문과학주의라는 환상의 비판

–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구축을 위하여 – 야기 타다시(八木 正)

2. 발전도상국의 환경문제 – 토다 키요시(戶田 淸)　　　　(발행 : 2002. 4. 4)

환경과 反차별 2호	환경과 反차별 3호
1. 반세계화 • 반자본주의자의 저항운동 - 노이즈(Noiz) • 1999년 11월 시애틀 • 2001년 7월 제노바 • D·I·Y 메시지 2. 반전평화 • 비전(非戰) - 무까이 꼬(向井 孝) • '비전(非戰)' 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담아서 - 미즈타 후(水田 風) • 9.11에 대한 대답 - 나까지마 마사카즈(中島 雅一) • 비폭력평화대(Nonviolent Peace Force) • 히모리씨 이야기 - 무까이 꼬(向井 孝) 3. 환경 • 위기에 처한 물 - 모드 발로 (발행 : 2002. 5. 29)	1. 리오+10.세계화 • 세계화가 리우정신을 허물어뜨렸다 !! - 마틴 코르 • 침몰하고 있는 지구 서미트 - 이노오에 레이꼬(PARC 대표) • 바리에서 결정한 건 "행동하지 않는 계획" -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그린피스 인터내셔널/WWF 2. 비전.평화(非戰.平和) • 보복(Blow-backs), 21세기의 키워드 - 토다 키요시(戶田 淸) • 보복·전쟁은 100배의 테러리즘이다 !! - 하워드 진(Howard Zinn) • 모든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연대 - 반다나 쉬바(Vandana Shiva) • 이매진(Imagine) - 폴 호켄(Paul Hawken) • 전쟁이냐, 평화냐 • 무력으로 싸울 용기가 있거든, 말로 싸우는 큰 용기를 가져라 !! - 우에무라 히데아끼(上村 英明) • 핵과 비폭력 -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 - 비폭력 평화대의 이상과 실현 - (발행 : 2002. 8. 14)

지금까지 미국사람들에게 “911”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응급구조 전화번호였지만 앞으로는 “911”사건을 먼저 연상할 것이다. 곧 다가오는 “911”에 미국인들은 과연 무엇이 응급상황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911”을 거꾸로 하면 “119”라는 구조번호시스템이 한국에 있다. 한국도 이 사회의 제도언론과 지식인들에게 길들여진 “911”의 시각을 거꾸로 들여다봐야 하는 응급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 등대 11 –

서두르다, 서두르다.

태풍보다 더 빠르게.

– 노아노아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9.11 이후 진행된 아프칸의 공습과 민간인 학살(!), 입맛에 맞는 정부구성, 이후 계속되는 죽임들은, 철저히 미국식 이익을 위한 재구성이다.

미국식(!) 자유와 정의가 관철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이런 시각은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말거나, 살아가는데 별 상관없는 일에 힘을 소모하느냐는 투의 무관심과 조롱으로 되돌아온다.

비폭력에 대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9.11 이후 전개되는 아프칸과 또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폭력과 평화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비폭력평화대를 준비하는 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쩜, 이렇게도 문제의식과 고민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9.11 이후 최근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주술로 스스로를 세뇌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뻔히 보이는 이 실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정말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9.11

억압과 죽임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억압과 죽임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새로운 저항과 비폭력 투쟁의 과정으로, 1주년을 맞이하자.

– 빵돌이 –

アメリカを 韓國と 日本から 追い出すたたかいを 日韓の民衆が 手を たずさえてやらねばとの 想いを……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쫓아내는 투쟁을 일본과 한국의 민중이 손을 맞잡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 타께노씨의 말 –

10년 전부터 잘 아는 일본의 친구 두 사람(둘 다 50대 초반의 고교 교사로, 일본평화네트워크 멤버)이 찾아와서, 이틀 밤 사흘 낮을 함께 보냈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몸으로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 온 전만규씨를 찾았다. 1989년 투쟁 초기에 그 곳에 가서 함께 싸운 나를 알아보고, 두 일본인에게 하는 말이 "50년간 농섬이 3개에서 하나가 아주 없어지고, 남아있는 두 섬 중, 큰 섬의 3분의 1이 사격과 폭격으로 없어졌죠. 그래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데, 31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무참하게 탱크에 으깨어져서 죽은 두 여중생의 사진들이 비에 젖고 있는데, '미군은 나가라'고 고함치고 있었다. 빗물과 함께 내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생각하면 지난 50년간 나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곳에도 두 일본 사람과 함께 갔다. 미군에게는 우리 남한 땅이 아직도 그들의 점령지(제 2차 대전에서 일본에게서 빼앗은)이고 작전지역(6.25전쟁은 아직도 작전중)인가. 미국은 이제 세계 모든 곳에서 무기를 거두어들고 돌아가야 한다.

「환경과 반차별」 Ⅰ, Ⅱ, Ⅲ 호를 내고, 이제 9.11은 다가오는데, 4호를 준비하면서, 토다 키요시 교수의 '평화'를 생각하는 글을 싣기로 했다.

– (ㅎ) –

소통

「환경과 反차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구애 없이, 아래의 연락처 인터넷 게시판에 메모를 기다립니다!!

응원

「환경과 反차별」 구독료나 응원금을 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 325-04-598461(이동근)

자매지(姉妹紙) 소개(가격 1.500원)

▮ 상계동 모임 소식지 1호(부정기) (2001. 11. 26)

- 무까이 꼬오의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
- 비전(非戰)
- 대담 – 9.11 미국테러에 대하여
- 한국인의 아나키즘 수용과 전개 …… etc.

상계동 모임 발행 동인 刊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No. 4.
▮ 펴냄 : 2002년 9월 2일(월)
▮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 판매 : 1.000원
▮ 우편 발송 가능 : 2권 이상, 우편 실비 추가